

여러분과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올바른 성경을 택하라

신30:19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모세 신30:19,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를 대적하는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네 씨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 육신적으로는 죽어도 사람은 불멸한다.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그래서 생명을 택해야 한다.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
어떻게 구원받는가?

엡2:8-9,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 은혜 등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어 알려주시는 분

하나님, 인간, 죄, 구원, 성화, 천국, 지옥, 마귀와 천사들 등 모든 계사가 성경에 들어 있다.

성경을 보니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그분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요5:39), 성경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
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요5:24,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것들이 다 성경에 들어 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고 구원 초청을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이다. one book, bible

우리의 서고 쓰러짐이 이 책에 달려 있다.

그래서 오늘 < >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려 한다.

그런데 왜 올바른 성경이라고 했을까? 오류가 있는,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역본들이 존재한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 딤후3:16-17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성경 문제를 잘 알지 못하고 또 관심이 없다(성경학자, 신학자, 목사들의
일). 잠21:12의 예,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누군가가 이전에 다 잘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문제이다.

성경의 대적자가 있다

인간 영혼을 대적하여 파멸시키려는 자가 있다. 마귀요 사탄이요 그의 즐거들인 마귀들이다.

마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낙태, 동성애, 역사 왜곡, 인간 자유 말살, 팬데믹 등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지만 마귀가 수행해 온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삭제하고 더하고 변개하고 비슷한 것들을 생산한다.

마13, 막4, 눅8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 뿌릴 때에
막4:3-9

예수님의 해석 막4:14-15, 20,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

마13:24-30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밭에 뿌림, 마귀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들을 뿌림

앞의 내용과 같이 보면 좋은 말씀을 뿌려서 좋은 곡식 열매, 그런데 비슷하게 보이는 가라지들이

존재함, 세상 끝까지 이런 일이 존재한다.

예수님의 말씀: 그럼에도 성경 보존, 마24:35

마귀가 하는 일 중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일, 비슷하게

고후2:17,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이미 존재함

계22:18-19, 엄중한 경고의 말씀

하나님은 한 성경을 주셨다

하나님의 입에서 오류가 없는 말씀들이 나온다. 하나님이 그 안에 숨을 불어넣으셨다. 영감
하나님께서 그 단어들을 보존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손에 그 단어들이 있다. 보존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보존된 단어들을 정확하게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이다.
이 세 개 모두 모두 기적적이다.

1. 영감도 기적, 오류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도하심
2. 보존도 기적, 오류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도하심
3. 표준 잣대가 된 번역도 기적, 오류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도하심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보존되어 번역된 성경이 있다.

그런데 마귀도 열심히 자기 일을 한다.

그 결과 종교 개혁 시대, 지금 이 시간 신구약 모두 두 종류의 본문이 존재한다.

도표로 (*), (*)

무어맨 박사의 연구, 2009년 8월까지의 그리스어 사본들 5,555개, 14년 동안 245개 추가됨

1. 파피루스 사본 124개, 2. 대문자 사본 280개
3. 소문자 사본 2,808개, 4. 성구집 사본 2,343개 (*)

그러면 정확히 다수 사본과 소수 사본의 개수는 얼마나 되는가?

5,555개 중 40여개만 소수 사본, 1%가 채 되지 않는다.

99% 다수 사본, 1% 소수 사본,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 사본, 천주교 사본 (*)

무어맨 박사는 다수 사본 '공인 본문', 소수 사본 현대 역본들의 근간이 된 비평본문 비교

「네슬레/알란드판」(Nestle/Aland Edition)의 그리스어 본문을 비교함 (*)

140,521개 단어, 5604군데 수정, 전체 단어 중 7% 변경

그 결과 비평 본문이 '공인 본문'에 비해 2,886개 단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만큼 단어가
삭제되면 결과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전후서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현대 역본을 읽으면 그만큼 짧은 성경을 읽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12구절 삭제(*)

NIV든 NASB든 개역성경이든 그 역본들의 근간이 되는 그리스어 본문이 '공인 본문'과 5,600군데나
다르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지난 1900년 동안 보존해 온 '공인 본문'에 근거를 둔 KJV와 절대로
동일할 수가 없다.

본문이 다르므로 어쩔 수 없이 번역본도 다를 수밖에 없다. 빵들이 다르므로(*)

개역성경, 개역 개정, 공동 번역 등 한글 성경

개역성경 (*)

아쉽게도 번역의 대본이 천주교 소수 사본이다.

그래서 13구절의 '없음'이 있다. 다수 사본에는 모두 있다. (*) (*)

욥기 19:26 완전 반대를 기록함(*)

(*), (*), (*), (*), (*), (*)

또 번역 자체도 현대인이 알기 어렵다. 하였음이더라, 할 것임이라 등 수백 군데
샤머니즘의 요소가 심하다. 창1:27 산 영, 귀신 등

오역이 수도룩하다. 마13:34, 막4:34, 비유가 아니면, 비유가 없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오류가 수도 없이 많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약2:19; 딤후2:5)

또 번역 자체도 현대인이 알기 어렵다. 하였음이더라, 할 것임이라 등 수백 군데

오해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다. 중고등학교 때 성경 읽기를 좋아하였다. 개역성경 신구약을 다 읽었다.

물론 개역성경을 통해 구원받았다.

미국에 가서 킹제임스 성경을 알기 전까지는 나의 성경이었다.

지금도 한국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이다.

개역성경분석을 쓴 이유도 책에 있듯이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들을 고쳐서 명백한 오류들을 고치라는 것이다.

1.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에 관하여

한국에서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킹제임스 성경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본인은 평생에 단 한 번도 그러한 주장을 펼 적이 없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본인은 본인 자신과 본인의 부모님이 모두 개역성경으로 구원받았음을 수십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증언하였고, 현재 본인이 담임하는 사랑침례교회 성도의 90퍼센트 이상도 개역성경을 통하여 구원받은 분들을 누차 밝혀 왔다. 또한 개역성경뿐 아니라 개역개정, NIV, 리빙 바이블,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등 어떤 한글 역본이나 영어 역본으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일관되게 가르쳐 왔다. 이는 본인이 즉흥적으로 내놓은 변명이 아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사랑침례교회 유튜브 채널에는 2016년 4월 10일자로 <개역성경으로 구원받지 못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어 있으며, 본인은 그 영상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혔다.

본인이 강조해 온 것은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식의 극단적 주장이 아니라, 개역성경을 비롯한 여러 한글 역본에 심각한 오역과 누락이 존재하므로 그 부분들을 정확히 번역하여 성도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학문적·목회적 문제 제기였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곧 '유일주의'로 둔갑한 것은, 본인의 글과 영상을 직접 살펴보지 않은 사람들이 풍문에 근거하여 본인을 평가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2.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았다는 말"은 내가 가장 미워하는 말이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고백에 따라 원어 성경만 영감을 받았고 그 원어 성경의 단어들은 순수하게 보존되었고 거기서 킹제임스 성경이 바르게 번역되었다고 믿는다. 교회 사이트를 보라.

내가 킹제임스 유일주의이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토록 오류가 많은 '개역성경 유일주의'를 믿는 것 아닌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쇄된 성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자체 구절들 세계 최고 베스트셀러, 모든 교리 및 신조의 근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가 없는 성경이라고 믿는 것은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그렇게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으면 된다.

3. '개역/개정 성경은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인은 평생에 단 한 번도 개역 또는 개역개정 성경을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본인은 개역성경에 심각한 오역과 누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을 뿐, 그 성경을 사탄이 만들었다거나 사탄이 변개하였다고 말한 적이 결코 없다.

개역성경에 오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본인의 독창적 주장이 아니라, 한국 정통 신학계가 오랫동안 공유해 온 인식이며 대한성서공회 자신이 개정 작업으로써 인정한 사실이다.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구분을 분명히 짚어야 한다. "개역성경은 사탄 성경이다"라는 말과 "개역성경에는 사탄에 의해 변개된 부분이 있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본인을 비방하는 이들이 의도적으로든 무지로든 끊임없이 뒤섞어 온 것이 바로 이 두 명제의 경계이다. 그러나 이 둘은 신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전혀 다른 진술이다.

첫 번째 명제 — “개역성경은 사탄 성경이다” — 는 성경 전체의 본질과 정체에 관한 진술이다. 이는 그 성경 자체가 사탄에게서 비롯되었으며, 따라서 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이 명제가 사실이라면 그것을 주장한 사람은 마땅히 책망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평생 단 한 번도 이러한 주장을 한 적이 없다.

두 번째 명제 — “개역성경에는 사탄에 의해 변경된 부분이 있다” — 는 성경 본문 전승의 역사에 관한 진술이며, 그 성경 안에 있는 특정 본문들이 사본 전승 과정에서 부정확한 형태로 흘러들어 왔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본문 전승의 정확성을 따지는 진술이다. 이는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정통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견지해 온 입장이기도 하다. 그들은 천주교의 라틴 별게이트와 그 배후의 일부 사본들이 본문상의 변경을 거쳤다고 보았고, 그래서 다수 사본 전승(이른바 비잔틴 사본 계열, 공인 본문,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 성경을 번역하였다. 종교개혁의 성경관 자체가 ‘사본 전승 중에 본문의 변경이 있었다’는 인식 위에서 출발하였던 것이다.

본인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은 정확히 이 두 번째 차원이다. 본인은 개역성경의 토대가 된 일부 소수 사본 계열(특히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 등 천주교 전승과 연관된 사본 계열)에 본문상의 누락과 변경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을 뿐, 개역성경 자체를 ‘사탄 성경’이라고 규정한 적이 없다. 비유하자면 이렇다. 어떤 사람이 “이 책의 어느 페이지에 오타자가 있다”고 말한 것을, 다른 사람이 “그는 이 책을 가짜 책이라고 말했다”라고 옳긴다면 이는 명백한 왜곡이다. “오타자가 있다”라는 말은 그 책이 정확하게 인쇄되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나오는 말이지 그 책이 가짜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 본인의 발언을 둘러싼 누명도 정확히 같은 종류의 왜곡이다. 본인은 성경의 권위와 보존을 믿기 때문에 어느 사본이 더 정확하게 보존된 본문인지를 따져 온 것이지, 개역성경 전체를 사탄의 산물로 매도한 적이 결코 없다.

<개역성경분석>을 보고 잘못된 데가 있으면 말하라. 아니며 고쳐서 성도들이 올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랑침례교회 설립 목적:

우리의 믿음과 약속(*)

(가) 신약 성경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교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 가지 성경적 사역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

(나) 복음 사역을 위해 남자들에게 안수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구원받게 하며, 성경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키게 하고,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의 선교 사역을 유지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며 세계 선교 사역을 돕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본 교회가 정한 다른 사역들을 수행하는 것

(다) 위의 두 목적을 올바로 이루기 위해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널리 알리고 가르치며 지키는 것

교회가 성장하였다. 이제 교회의 설립 목적을 다시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생김

올바른 성경을 알리고 번역해서 보급하는 일은 칼빈과 루터 등 종교 개혁자들이 한 일이다.

현시대 미국의 근본주의 성경 신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 국가가 정해 준 양심의 자유(영혼의 자유)

몇 권의 책을 보기 바란다. 유튜브 더보기 링크

역사적 팩트

성경 문제 (*)

모세의 결단 촉구 신30:19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를 대적하는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네 씨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여러분과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1. 생명을 택하고 구원받아야 한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2. 그 뒤에 성장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위해 필요한 것, 없음, 오역, 삭제, 첨가, 변개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읽을 수 있는 것: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

우리말 킹제임스 성경: 최선을 다해 번역하였다.

성경 보존 (*)

비교 검토 원하는 분들, 무료 링크